



허아람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서점 '인디고서원' 대표

“여기 서점 맞아?”
 청소년 쪽빛 내일 이끄는 아주 특별한 서점

부산 남천동에 이색異色 서점 '인디고서원' 이 문을 열었다. 그렇다고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도, 부록이 탐나는 잡지도 없다. 학원가에 있으면서도 정작 참고서와 문제집은 팔지 않는다. 서가에는 엄선된 1,000여 종의 인문학책이 꽂혀 있으며, 매대에는 세계의 아트북이 열람을 기다리고 있다. 무심코 문을 열고 들어섰다가 “여기 서점 맞아?” 라고 한 마디씩 할 법하다. 인디고서원이 각별한 이유는 진정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청소년의 내일을 바로 세우겠다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디고서원 대표 허아람(33) 씨를 만나 그 의미를 들어보았다.

“서점이 문화공간이라 하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 서점은 없습니다. ‘아저씨, 무슨 문제집이요’ 하고 열린 일을 보고 나가버리는 곳이 또 동네서점이지요. 우리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집이 아니라 ‘글을 읽어 사람을 이해하는’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책을 읽지 않는다는 단식 이전, 그것을 안내해 줄 공간이 있었던가를 먼저 생각해야지요.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권해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더 여유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의미야 각별하지만, 사실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이란 모토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중소서점이 속수무책 문을 닫는 마당에, 청소년이란 타깃 설정도 모자라 안 팔리는 인문학책을 판매하겠다는 말이다. “도발적인 모토가 가능한 지점은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허씨는 ‘아람샘’ ‘인디고아이들’ ‘행복서점’ 삼각편대를 내세웠다.

‘아람샘’은 허씨가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독서토론포교실. 《부르디의 사회학 입문》 《20세기로부터의 유산》 등 어른도 읽기 힘든 인문학책을 교재로 삼고 토론하는 ‘아람샘’의 수업은 부산 일대에서 정평이 나있다. 인문학책을 거뜬히 읽어내고 사유할 줄 아는 아이들에게 비영리 문화공간 ‘인디고 아이들’을 열어 선물한 것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몇 달 후 《틱낫한과 춤스키까지》로 아이들과 수업하던 허씨는 “뜻을 품었다면 실천하라”는 현자의 가르침에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서점을 열 것을 다시 결심했다. 허씨는 곧장 교재 구매로 인연을 쌓은 ‘행복서점’ 주인 이승희 씨를 찾아 공동운동을 제안했다. “목표한 일이라면 기어코 해내는 아람 선생의 강단을 알고 있어 미친 짓이란 걸 알면서도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중소서점 유통에 환멸을 느낀 터라, 인디고서원을 통해 중소서점의 정직한 유통을 실현해 보고 싶은 바람도 있었지요.” 이씨는 공동운영자로 참여한 이유를 말한다.

‘아람샘’ 아이들의 순수한 홍보, 책과 차를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 ‘인디고 아이들’의 이미지 파급, 여기에 유통과 영업에 일가견을 갖춘 ‘행복서점’ 이씨가 힘을 보탤었으니, 인디고서원은 거칠 게 없다는 얘기가.

지난 8월 허씨와 이씨는 인디고서원의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정 출판사의 책을 구입하는 데는 직거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창비, 문학과지성사, 솔출판사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인디고서원의 취지를 밝혔을 때, 관계자 모두는 깊은 감응을 표했다. 특히 창비 박동흠 부장은 창비의 모든 책들을 인디고서원에 제공하겠다고 하며, 판매수익은 받지 않겠다는 과격적인 제안을 했다. 판매수익을 더 나은 일에 쓰라는 배려를 모르는 것이었지만, 허씨와 이씨는 간단하게 그 제안을 물렸다. 허씨는 창비 책이야 눈을 감고 선택해도 될 만큼 좋은 책이지만, 인디고서원 서가에 꽂힐 책은 꼭 자신이 선별한 책이어야 한다는 당찬 대답까지 곁들였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바꿀 공간이 인디고서원입니다. 인디고서원이 가진 순수한 아이터만으로 크고 싶을 뿐, 인맥 연줄 특혜는 절대 사양입니다. 지인들이 이런 저런 방법으로 도와주겠다고 얘기했지만, 인디고서원만큼은 그렇게 커나갈 수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했지요.”

허씨의 철학만으로도 인디고서원 책들의 미추美醜는 충분히 가려진다. 서점에 외파로 꽂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저들끼리 서가에 어울린 인문학책은 알록달록한 그 개성을 자랑한다. ‘난해하고 지루한 인문학책’이란 말은 인디고서원에서만큼은 거짓말. 문학 철학 역사 예술 교육 생대로 분류된 책은 넉넉히 사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다.

“십여 년 동안 좋은 책을 선별하고 목록을 만든 것은 제가 좋아서 한 일이지요. 책은 굉장히 평등한 물질입니다. 좋은 책이 권력과 자본에 왜곡돼 구석에 처박히는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평등한 물질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자본과 권력과의 싸움은 순정한 채 의지입니다. 독단적인 선정 아니냐는 물음도 있겠지만, 저는 세 선택을 믿습니다. 제가 먼저 가려낸 책은 몇 달 뒤에 무슨 무슨 우수도서라는 금딱지가 꼭 붙어 있었지요.”

인디고서원의 하루 판매는 대략 30만 원 선. 일단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란다. 더 이상의 투자는 계획에 없으며, 순수 책판매로



인디고서원 051 628 2897

적자 없이 인디고서원을 끌어가는 것이 허씨의 지상과제다.

“부산 남천동은 ‘강남 8학군’으로 비유될 만큼 학원가의 중심입니다. 인디고서원은 학원가에 드문 아름다운 공간이지만 사실 치열한 공간이기도 해요. 입시에 시달리는 수백 명 학생들이 문제집을 사두고 학원으로 갈 뿐이죠. 많은 입시학원이 도서관으로 바뀌고, 인디고서원에서 청소년들이 세상과 꿈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허씨는 인디고서원이 문을 닫는 건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유보하는 일에도 리름 아니라고 했다. 창비 박동흠 부장은 ‘출판계의 희망이 쓰러지는 것’이라며 격려해 주기도 했다. “많은 분들이 어디 한번 보자, 하고 내기하는 심정으로 인디고서원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허씨는 “그런 만큼 더욱 분투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인디고는 쪽빛을 말함이다. 몇 번을 거듭 염색해야 제대로 얻을 수 있는 색이 또한 쪽빛이다. 바른 독서운동을 이끄는 허아람 씨, 학교에서 ‘책 읽는 왕따’로 통하는 ‘아람샘’ 아이들, ‘인디고 아이들’에서 문화를 누리는 지역 주민, ‘아람샘’ 2기 회원으로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인디고서원의 실장 역을 기꺼이 맡은 황수진 씨, 이 모두를 눈 밝게 알아보고 공동운영에 뛰어든 ‘행복서점’ 이승희 씨까지. 이처럼 순수한 쪽빛으로 거듭 물을 들인 인디고서원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쪽빛임에 틀림없다. ■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